

Fund Facts

<b>투자 목적</b>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추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추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b>운용개시일</b>	2001-11-06
<b>펀드 규모</b>	21 억원
<b>총보수</b>	순자산평잔의 연 2.34%
<b>환매수수료</b>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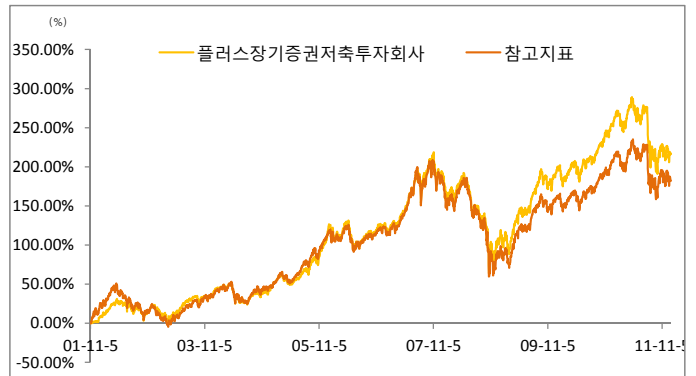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 이후
플러스장기증권투자회사	-0.27%	2.41%	-13.60%	-11.67%	216.83%
참고지표	-0.82%	2.55%	-9.42%	-6.98%	182.11%
초과수익률	0.55%	-0.14%	-4.18%	-4.68%	34.72%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1.05~2011.12.3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2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0.27%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변동률은 -0.82%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양호했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경기민감주의 비중을 축소하고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변경했으며 이 가운데 시장이 소폭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시장은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박스권의 양상을 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방어주로의 전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며 섹터별 순환매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식 시장 및 자산배분

12월 주식시장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호조 지속과 중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월 초반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ECB(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 시작 등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어 주요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되었으며 김정일 사망에 따른 대북 리스크에도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주식자산에서 채권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속적으로 업종내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삼성전자 중심의 전기전자 업종과 종이목재, 건설, 음식료, 전기가스, 증권, 의약품 등 저베타 내수 업종 중심으로 상대성고가 양호하였으며, 은행, 운수장비, 운수창고, 금융, 화학, 기계, 철강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과 연말 배당락에 따른 통신업종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 주식 편입비율은 8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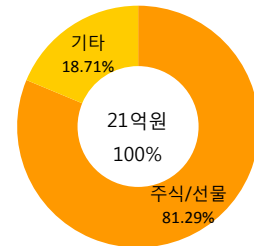
지난달은 스카이라이프, 한국전력, 오리온, KT&G 등을 순매수하였으며 파라다이스, GS, S-Oil, 호남석유, 금호석유, 카프코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는 대상, 오리온, 현대그린푸드, 만도, 현대해상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SK C&C, 세아베스틸, NHN, 다음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추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57.5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12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50.3로 종료됨에 따라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 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2012년 1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62.5를 매도하였으며, 1월 만기일까지의 추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1.12.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1.10.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39.79%)

삼성전자	12.27
현대차	5.34
기아차	3.60
LG화학	3.44
현대모비스	3.34
하이닉스	2.77
POSCO	2.46
금호석유	2.23
롯데쇼핑	2.18
LIG손해보험	2.17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 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